



3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손에 2심 승소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음 10월 12일) 제3391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비전선포식’



23일 인천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전북을 비롯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 11개 시·도교육청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으로 미래교육 비전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차전지 음극재 전문기업 새만금 국가산단에 ‘등지’

에이원신소재, 전북도·새만금청·군산시 등과 협약
3000억원 투자 2025년부터 연간 음극재 10만톤 생산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 (주)에이원신소재와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음극재란 리튬이온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중 하나로,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하며 원료는 흑연과 코크스를 주로 쓰이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인준 군산시시장, 웨인 중국 탄이신에너지그룹 동사장, 한상영 (주)에이원신소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에이원신소재는 이차전지 음극재 연구·제조 전문기업인 중국 탄이신 에너지그룹의 기술을 도입하여 설립한 한국법인으로, 올해 말 새만금산단 5공구에 착공해 2025년부터 연간 250

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10만톤 규모의 음극재(천연흑연·인조흑연)를 생산한다.
이차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음극재는 국내 이차전지 소재산업 중 가장 취약한 분야였으나, 이번 투자로 국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글로벌(세계)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에이원신소재는 해외에서 1차 가공된 원재료를 수입하여 탄이신 에너지그룹이 독자 개발한 물리적 순화기술을 적용한 고성능·저비용·친환경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투자규모는 3,000억원, 신규고용인원은 250명이며, 2025년 제품생산 및 공급을 위해 투자협약과 동시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군산=김관곤 기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목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 가시화
정부 협의 통한 최종안 등 수정 행안위원장 대안으로 마련
법안 8개 핵심분야서 고루 특례 반영 130여개 조문 통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돼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 법안제1소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최종 입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현 특별법 수준에서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날 행안위 통과까지 여·야를 대

표해 발의해 준 정운천·한병도 의원의 활약이 특히 빛났다. 여야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끊임없는 설득 활동은 물론, 소관 상임위 의원을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 포함하는 등 전략적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이 올해 초부터 전북 맞춤형 특례발굴, 특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전부개정법률안과 정부 협의를 통한 최종안 등을 수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의 8개 핵심 분야에서 고루 특례가 반영된 130여개 조문이 통과되며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특례로 전북이 대표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농업을 특화 발전하기 위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전북이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최초로 시도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국제케이팝학교, 고령인구 케어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부권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자원 이용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전북이 지정하는 4개 지구·특구·단지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등이 있다.
또한, 제3 금융지 도약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 전북에 다수 분포한 자동차 대체부품 기업을 기반으로 연계 산업 발전을 위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특례 등도 대안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수소, 이차전지 등 산업 특례와 새만금 고용특구, 대학 학생정원 조정 등 기반 특례와 함께 지난 9월 윤준병 의원이 추가로 발의했던 종합계획 수립 특례도 반영됐다.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맡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통과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통과를 향한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가 지난 1년여간 준비한 노력이 전남 소위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 통과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법사위·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 내년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7일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 결의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협력 활동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 (주)에이원신소재와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지정 사적 '제5로 직봉' 부안 점방산 봉수 유적 지정

부안 점방산 봉수 유적이 '제5로 직봉' 노선 상에 위치하는 61개 봉수 유적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 잔존 상태, 유구 확인 여부 등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16개소에 포함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로 직봉' 연속유산으로 지난 22일 지정됐다.
부안 점방산 봉수는 여수 방파진 돌산도봉수에서 시작하는 제5로 직봉노



선의 스물여덟번째 연변봉수이며 특히, 봉수를 상징하는 연대(煙臺)가 이번에 지정된 직봉중에 가장 웅장하고 형태가 잘 보존된 봉수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전북대학교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100 Global TOP 100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선정

폐교 서남대가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다시 태어납니다!